곁텍스트를 통해 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언해본『古列女傳』연구*

- 小序, 插畫, 註釋을 중심으로 -

강 나 래**

1. 서론
2. 언해본『고열녀전』에 나타난 곁텍스트와 책의 기획 의도
3. 언해본『고열녀전』곁텍스트의 구심성과 원심성
4. 결론

초록: 본 연구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古列女傳』의 곁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이 책의 편집 및 기획 의도를 고찰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고열녀전』은 총8권 중 권4만 남아있는 낙질본이지만 중종 대 李上佐, 柳耳孫, 申珽, 柳沆 등이 임금의 명 아래 제작에 참여해 완성된 번역서라는 점에서 가치가 작지 않다. 그러나 자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책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책의 제작 의도, 즉 언해본『고열녀전』이 어떠한 텍스트로서 기획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고는 곁텍스트를 통하여 언해본『고열녀전』이 어떤 텍스트로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하였다. 곁텍스트는 책을 이루는 부속물에 불과하지만 제작자의 기획 의도를 뚜렷하게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아가 본고는 곁텍스트가 텍스트의 수용을 공고하게 하지만은 않는다고 본 Ellen McCracken의 관점에 입각하여 언해본『고열녀전』의 곁텍스트가 실제로 독자에게 제작자의 의도대로 받아들여졌는지 고찰해보았다.

---

* 이 글은 서울대학교 2018년 1학기 정병설 선생님의 '서사학이론 연습' 강의중 작성하고, 2018년 11월 9일 국문학회 동계학술발표에서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논문을 읽고 조언을 해주신 분들과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린다.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전' 텍스트이자 '언해본'이라는 이 책의 본질을 고려하여 곁텍스트의 범주를 재조정하고 그 가운데 주변텍스트로 小序, 插畫, 註釋을, 바깥텍스트로 문집의 기록과 『朝鮮王朝實錄』의 기사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언해본 『고열녀전』의 제작자는 소서와 삽화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부터 주석을 어느 수준까지 달 것인가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곁텍스트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언해본 『고열녀전』의 제작자가 단순 번역서나 다이제스트본을 넘어서는 교화서를 만들고자 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바깥텍스트를 통하여 한층 명확하게 드러난다. 어숙권의 『稗官雜記』 기록과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 의하면 언해본 『고열녀전』은 기획 단계부터 여타 행실도류와는 변별되는 책으로 의도되었던 듯하다. 종합해보자면 『고열녀전』 언해본은 일종의 正典으로서 기획된 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렇듯 섬세한 부분까지 고려되었던 것에 비하여 언해본 『고열녀전』의 곁텍스트는 독서를 진작시키고 텍스트의 의미 형성에 기여하는 구심적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살펴본바, 소서는 3종의 이본 중 2종에 나타나며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고열녀전』과 유사한 체제를 취한 반면 삽화는 모든 이본에서 생략되고, 주석은 세 이본에서 확인되지만 그 수가 줄고 해설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독자에게 소서는 구심성을, 삽화는 비교적 원심성을 지닌 곁텍스트로 주석은 원심성을 내포한 구심적 곁텍스트로 여겨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핵심어 : 언해본 『古列女傳』, 곁텍스트, 주변텍스트, 바깥텍스트, 정전, 구심성, 원심성

1. 서론

본고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古列女傳』의 곁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이 책의 편집 및 기획 의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고열녀전』은 중종의 명 아래 한나라 대에 창작된 유향의 『열녀전』을 번역한 작품으로 총 8권 가운데 권4에 해당하는 「貞順傳」만이 전해진다.[1] 이 언해본 『고열녀전』은 조선전기 인물화로 유명하였던 李上佐가 삽화를 그리고, 명필

1) 상술하였듯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고열녀전』은 유향의 『열녀전』을 한글로 번역한 이본으로 논의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하로는 '언해본 『고열녀전』' 또는 '『고열녀전』 언해본'이라고 명명하도록 할 것이다.

이었던 柳耳孫이 출판할 책의 글자를 쓰고, 申珽과 柳沆이 번역을 맡았던 책으로 비교적 공력을 기울여 완성된 번역본이다. 그렇지만『고열녀전』언해본이 제작되었던 중종 대는 교훈서 및 행실도류의 편찬 및 번역 작업이 국가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으며『고열녀전』에 수록된 이야기들은 여타 행실도류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당대『고열녀전』언해본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현전하는 이본은 적지만『고열녀전』언해본이 1918년 태화서관에서 간행된 구활자본으로도 존재한다는 점은『고열녀전』언해본의 기획 의도가 후대에도 어느 정도 유의미하였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언해본『고열녀전』의 편집 및 제작에 관여했던 이들의 기획 의도를 파악하는 일은 이 책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고열녀전』언해본이 어떠한 텍스트로서 기획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2] 그리고 그에 대한 단서를『고열녀전』언해본의 곁텍스트로부

2) 국립한글박물관 소장『고열녀전』에 대한 연구는 자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소략한 편으로 2015년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발행한『여러 여성들의 이야기, 열녀전』에 수록된 세 편의 논문(강명관, 2015「유향의『고열녀전』과『삼강행실도』「열녀편」」,『여러 여성들의 이야기, 열녀전』(국립한글박물관 편), 국립한글박물관; 박철상, 2015「조선본『열녀전』의 서지적 의미」,『여러 여성들의 이야기, 열녀전』(국립한글박물관 편), 국립한글박물관; 정병모, 2015「이상좌가 그린『고열녀전』언해본 삽화」,『여러 여성들의 이야기, 열녀전』(국립한글박물관 편), 국립한글박물관)과 김영, 박재연, 이재홍, 2015「조선본『古列女傳』의 발굴과 그 의미」,『중국어문학지』51, 중국어문학회; 이상훈, 2015「『古列女傳』의 한글 필사본에 대한 연구」,『한국문화』71, 규장각한국학연구소; 김영, 2016「조선본『古列女傳』의 가치와 의미」,『한국중국소설학회』99, 한국중국소설학회가 존재한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고열녀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전체 8권 중 권4에 해당하는「정순전」만 남아있어 자료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선행연구 목록에서 볼 수 있듯『고열녀전』에 대한 연구는 유통, 서지학, 회화, 국어학적 측면 등 비교적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소장『고열녀전』의 자료적 가치는 상당 부분 밝혀졌다. 다만 위의 서론에서 기술하였듯 교훈서나 행실도류의 편찬·번역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미 비슷한 유의 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고열녀전』언해본을 별도로 정리 및 제작할 필요가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국 언해본『고열녀전』이 어떠한 텍스트로서 기획되었는가 하는 제작 의도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고는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를 온전히 포착하기 위해선 이 지점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터 모색해볼 예정이다. 곁텍스트(paratext)는 제라르 주네트(Gérard Genette)가 『문턱(Seuils)』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제목, 저자 이름, 序·跋文, 주석, 評點, 삽화, 글자체, 판형 등 텍스트에 부가되어 의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물을 가리킨다.[3] 곁텍스트의 주요한 사명은 독자가 작가의 의도에 부합하는 독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4] 주네트에 의하면 곁텍스트는 텍스트 해석의 출발점으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텍스트가 책의 형태로 소비 및 수용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5] 이런 점에서 곁텍스트는 넓게는 하나의 작품을 텍스트 내외부의 요소를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틀로써 활용 가능하며 좁게는 책 제작에 관여한 이들의 기획 의도와 편찬 목적을 포착하는 데 유용한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고열녀전』 언해본에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고열녀전』의 경우 특히 곁텍스트가 풍부하게 나타나 책의 제작자(번역자와 편집자, 삽화가 등)가 텍스트 내외부의 요소를 어떻게 구성 및 활용함으로써 기획 의도를 실현하고자 했는지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본고에서 언해본 『고열녀전』이 어떠한 성격의 텍스트로서 제작된 것인지를 살피는 데 곁텍스트

한다고 본다.

3) But this text is rarely presented in an unadorned state, unreinforced and unaccompanied by a certain number of verbal or other productions, such as an author's name, a title, a preface, illustrations. And although we do not always know whether these productions are to be regarded as belonging to the text, in any case they surround it and extend it, precisely in order to present it, in the usual sense of this verb but also in the strongest sense: to make present, to ensure the text's presence in the world, its "reception" and consumption in the form (nowadays, at least) of a book.(Gérard Genette(translated by Jane E. Lewin),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

4) The most essential of the paratext's properties, as we have observed many times (but, in concluding, I still want to insist on it), is functionality. Whatever aesthetic intention may come into play as well, the main issue for the paratext is not to "look nice" around the text but rather to ensure for the text a destiny consistent with the author's purpose.(Ibid., p.407.)

5) Ibid., pp.1-2.

에 주목하고자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만 본고는 언해본『고열녀전』의 곁텍스트를 분석함에 있어 곁텍스트에 대한 Ellen McCracken의 관점을 빌려오고자 한다. Ellen McCracken은 인쇄물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행되어 가는 과도기적 텍스트의 한 형식으로서 전자책이 등장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곁텍스트의 범주 역시 확대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연구자이다.[6] 그는 주네트가 제시했던 곁텍스트의 범주를 구심성(Centripetal Vector)과 원심성(Centrifugal Vector)의 측면에서 확장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곁텍스트가 주네트의 주장처럼 텍스트의 수용 및 소비를 공고하게 만드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였다. 변화한 독서 매체의 곁텍스트가 독자들이 작가 내지 편집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텍스트를 수용하게끔 견인하는가 하면 반대로 텍스트의 독해를 방해함으로써 작품의 수용과 소비를 저해하기도 한다는 지적은 그의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는 인쇄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통하여 생산된 독서물에서도 곁텍스트가 작가와 편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텍스트 수용에 반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고열녀전』언해본의 곁텍스트를 단순히 검토하는 데서 나아가 각각의 곁텍스트가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수용하는 데 어떠한 방향(구심적-원심적)으로 움직였던가를 살펴봄으로써 여러 곁텍스트가 제작자의 의도대로 작용하였는지까지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범텍스트적 차원에서 언해본『고열녀전』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바이다.[7]

---

6) Ellen McCracken, 2013 "Expanding Genette's Epitext/Peritext Model for Transitional Electronic Literature: Centrifugal and Centripetal Vectors on Kindles and iPads", *Narrative* vol.21 no.1, pp.105-124.

7) 본고는 고전 텍스트를 그를 둘러싼 다양한 곁텍스트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일종의 시론적 연구이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은 텍스트의 성격과 책 제작자의 본래적 기획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곁텍스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고열녀전』언해본 연구를 시작으로 추후 다른 고전 텍스트 해석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2. 언해본 『고열녀전』에 나타난 곁텍스트와 책의 기획 의도

이 장에서는 『고열녀전』 언해본에 곁텍스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고전' 텍스트이자 '언해본'이라는 이 책의 본질에 맞추어 곁텍스트의 범주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언해본은 원전의 번역본이라는 측면에서 원본으로부터 나온 종속적 텍스트로 이해 가능한데, 이런 점에서 언해본의 곁텍스트는 원본의 위치에서 본다면 바깥텍스트로 분류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8] 또한 번역본을 제작하는 과정에 원본 제작 시엔 없었던 번역자나 또 다른 편집자가 2차 저자로서 관여하게 되면서 번역본에는 원저자나 편집자가 기획한 곁텍스트 이외에도 번역자와 2차 편집자에 의해 제작·재편된 곁텍스트가 생긴다.[9] 그 결과 곁텍스트의 범주를 살피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을 정확한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번역본'이라는 이 책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곁텍스트의 범주를 재조정하여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곁텍스트를 선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주네트에 의하면 곁텍스트는 다섯 가지 특성(공간적·시간적·본성적·화용적·기능적)[10]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는 다섯 가지의 기준 가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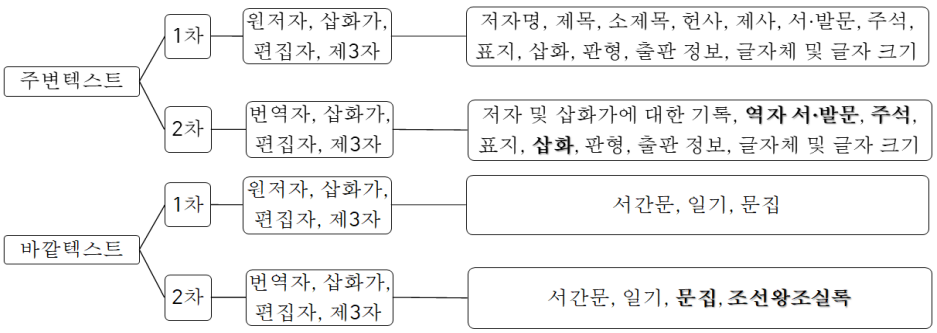
8) 박선희, 2015 「번역문의 곁텍스트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에 대한 정의」, 『번역학연구』 16, 한국번역학회, 24면; 주네트는 곁텍스트가 위치한 공간에 따라 텍스트의 주위나 사이에 위치한 주변텍스트(péritexte)와 책의 외부에 자리한 바깥텍스트(épitext)로 나누었다. 이때 편집과 관련된 요소(저자명, 서문, 각주, 제사, 헌사 등)로서 '책 속'에 위치해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곁텍스트를 주변텍스트라고 한다면 책을 둘러싸고는 있지만 책 자체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곁텍스트(인터뷰, 편지, 일기 등)는 바깥텍스트라고 부른다(지영래·박선희, 2010 「번역본에서의 곁텍스트의 위상: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 한국번역학회, 250면).

9) 박선희, 위의 논문, 25면.

10) ①공간적(spatial) 특성: 곁텍스트가 놓이는 위치(주변텍스트/바깥텍스트). ②시간적(temporal) 특성: 본문과 비교하였을 때 곁텍스트가 작성된 시간(사전 곁텍스트/초판 곁텍스트/후속 곁텍스트/추후 곁텍스트). ③본성적(substantial) 특성: 곁텍스트의 존재

데 번역본과 원본을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 화용적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선행 연구의 시각에 동의한다.[11] 하나의 텍스트를 번역함에 있어서 텍스트의 생산에 번역자와 2차 편집자의 개입은 필연적인 일이며 이 과정에서 이들 2차 저자가 누구를 독자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곁텍스트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수정이 가해지기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이다. 다만, 언해본『고열녀전』에 나타나는 곁텍스트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본고는 번역본의 곁텍스트를 먼저 공간적 특성에 따라 대분하고, 그를 다시 화용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였다.

〈표 1〉 곁텍스트(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의 재범주화



이 가운데 본고는 주변텍스트로는 2차 저자(『고열녀전』 언해본의 제작자)에 의하여 구성 및 재편집된 小序와 插畫, 註釋을 다루고, 바깥텍스트로는『고열녀전』 언해본에 관한 2차 저자의 문집 기록과『朝鮮王朝實錄』의 기사를 검토할 것이다.

형태(텍스트적인 성질을 갖는 것/언어적 성격의 것/도상적 성질의 것/물질적 성질의 것/사실적 성질의 것). ④화용적(pragmatic) 특성: 곁텍스트의 의사소통적 요소(발신자[저자/편집자/제3자], 수신자[공적/사적], 책임[공식/비공식], 발화내적 힘[정보, 의도 및 해석, 결정, 약속, 충고, 명령 등]). ⑤기능적(funtional) 특성: 곁텍스트의 활용 목적(박선희, 위의 논문, 16-20면).

11) 지영래 · 박선희, 앞의 논문, 251면.

1) 언해본『고열녀전』의 주변텍스트

(1) 小序

언해본『고열녀전』권4의 첫 장에는 원본의 저자와 삽화가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함께 권4에 수록된 작품 목록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소서가 적혀 있다.

> 이같이 정숙하고 유순한 사람은 어진 도를 닦고 일하기를 바르게 하여 의심 받을 일을 피하며 부부 사이의 분별을 엄격히 하고 반드시 미쁘게 하여 끝내 두 번 시집가지 않았다. 천하의 으뜸이 되는 어진 여성으로 마음이 순하고 바르며 행실이 깨끗하여 정성스럽고 마음이 한결같아 조심하니 모든 여성들은 (이를) 보고서 본받아야 할 것이다.[12)]

전한 시대 유향이 편찬한『고열녀전』고본은 송대에 이르러 유실되었다. 그러므로 위의 소서가 원본텍스트에도 적혀 있었던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유향의『고열녀전』이 여러 차례 전사되었으며 현전하는 중국의 여러『고열녀전』판본에서 소서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언해본에 실린 소서는 1차 주변텍스트로 분류하는 것이 온당할 수 있다. 그러나『新刻書局叢書』本,『欽定四庫全書』本,『四部叢刊初編』本,『崇文書局叢書』本『고열녀전』등에서 여덟 개의 소서가 첫 번째 권의 서두에 서문 혹은 목록과 더불어 한 번에 제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언해본『고열녀전』의 소서는 2차 편집자에 의하여 그 위치가 재편된 '2차 주변텍스트'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는 소서를 2차 주변텍스트의 하나로 포함시켜 다루되, 소서가 옮겨간 위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변텍스트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었는가는 곁텍스트 연구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주변텍스트의 위치는 텍스트 간의 결합성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텍스트의 의미 형성에도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

---

12) 국립한글박물관 편, 앞의 책, 21 · 23면.
『古列女傳』권4「貞順傳」, 小序, "惟若貞順 脩道正進 避嫌遠別 爲必可信 終不更二 天下之俊 順正潔行 精專謹愼 諸姬觀之 以爲法訓. ·이 ·ᄀᆞ·톤 貞뎡靜:졍ᄒᆞ:고 柔유順:슌ᄒᆞ·니·는 어·딘 道:도·롤 닷ᄭᆞ·며 :일ᄒᆞ·기·롤 正:졍·히·ᄒᆞ·야 嫌혐疑의롤 避:피ᄒᆞ·며 남진 :겨·집 ᄉᆞ·이 · 예 ᄀᆞᆯ·히기·롤 머리ᄒᆞ고 ·반·ᄃᆞ·시 믿비·ᄒᆞ·야 ·내·죵·내 :두 남편 아니ᄒᆞ·니 天텬下:하·의 읏듬 ·어·딘 ·녀·편이·니 ᄆᆞ숨·이 順슌코 올코 行힝實실이 ·조·하 精졍誠셩코 ᄆᆞ숨이 全젼一일ᄒᆞ·고 操:조心심ᄒᆞ·니 모·든 녀편·이 ·보·아·셔 法·법바·다 ·홀·디니·라."(국립한글박물관 편, 앞의 책, 20 · 22면)

다. 따라서 소서를 어떤 곳에 새롭게 위치시켰는가는 2차 편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서의 위치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그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언해본『고열녀전』은 전술하였듯 현재 권4에 해당하는「정순전」만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정순전」이라는 小題 아래 묶인 15편의 열전은 모두 예의와 규범을 철저하게 지켰던 여성들에 관한 것이다. 이때 이 15편의 열전을 하나로 결집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서이다.「정순전」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있는 소서는 2차 저자인 편집자가 주요타깃으로 삼은 독자층을 밝히고 15편의 개별 작품이 지닌 공통적 성격을 추출 및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언해본『고열녀전』의 편집자는 소서를 통하여「정순전」의 내포독자로 '모든 계층의 여성'을 호명[13]하는 한편 입전된 15명의 여성들이 어떠한 모범적 행실을 보였는지를 압축적이지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언해본『고열녀전』의 소서는 이 책이 어떠한 텍스트로서 기획되었고, 독자들이 개별 작품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독해해야 할지를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편집자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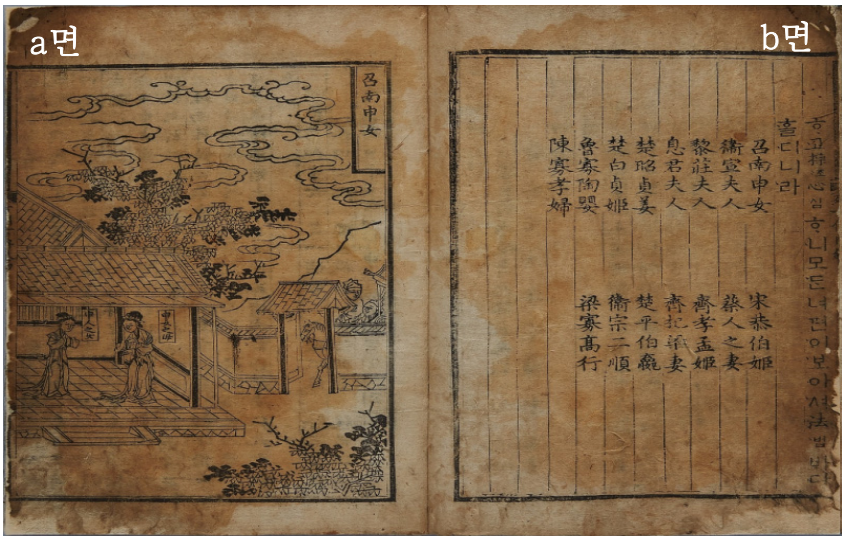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서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정순전」의 소서가 놓여있는 위치이다.「정순전」과 관련된 소서가 권1에 다른 篇目의 소서들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 권4의 첫머리에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언해본『고열녀전』의 편집자가 본인이 의도한 방향으로 책의 예상 독자를 인도하기 위해 적절한 소서의 위치를 모색하였음

13) 유향의『열녀전』찬술 동기와 관련하여 유전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유향이『열녀전』을 쓴 일차적 동기는 한나라 성제의 총애를 입었던 후궁 조비연이 황실을 타락시키는 행동을 자행하자 황실의 기강과 안정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유향이 황제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한 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반고는『한서』「초원왕전」에서 유향의『열녀전』찬술 동기를 천자를 경계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유향이 설정한 이 책의 내포 독자를 '천자'라고 해석하였다. 이런 점에 근거해 일부 연구자들은 원본텍스트의 주요 독자를 남성 지배 계층으로 파악했다. 그런가하면 다른 연구자는『열녀전』의 편찬의도를 천자에 대한 경계와 여성의 유교적 도덕 확립에 있다고 보고 독자층을 하나의 성별에 한정하지 않았다. (강현경, 1998「劉向『列女傳』의 撰述本意와 流傳樣相」,『語文硏究』30, 어문연구학회, 6-10면; 최진아, 2009「견고한 원전과 그 계보들 -동아시아 여성 쓰기의 역사-」,『중국어문학지』9, 중국어문학회, 326-327면; 이윤경, 2010「유향의『열녀전(列女傳)』편찬의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1-80면.)

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고열녀전』 언해본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권1부터 권8까지를 차례로, 한 번에 정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5편의 열전 바로 앞에 해당 편목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소서가 배치됨에 따라 이들 열전은 하나의 틀 안으로 결집되며, 그 결과 이전 편목을 읽지 않은 독자는 물론이고 독해의 수준이 낮은 독자까지도 편집자의 의도대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정리하자면, 언해본 『고열녀전』의 편집자는 곁텍스트로서 소서가 가지는 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정순전」의 소서를 권1이 아닌 권4 앞머리에 수록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 插畫

언해본 「정순전」에는 '衛宣夫人'과 '息君夫人'을 제외한 13편의 이야기에 삽화가 실려 있다. 이들 13점의 삽화는 〈그림 1〉과 같이 모두 a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앞의 이야기가 a면에서 끝나 새로운 열전의 삽화가 b면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그림 2〉처럼 한 면을 비워 a면에 삽화가 놓이도록 배치하였다.



〈그림 1〉 언해본 『고열녀전』 '召南申女'

〈그림 2〉 언해본『고열녀전』'衛宗二順' 마지막장(右)과 '梁寡高行' 첫 장(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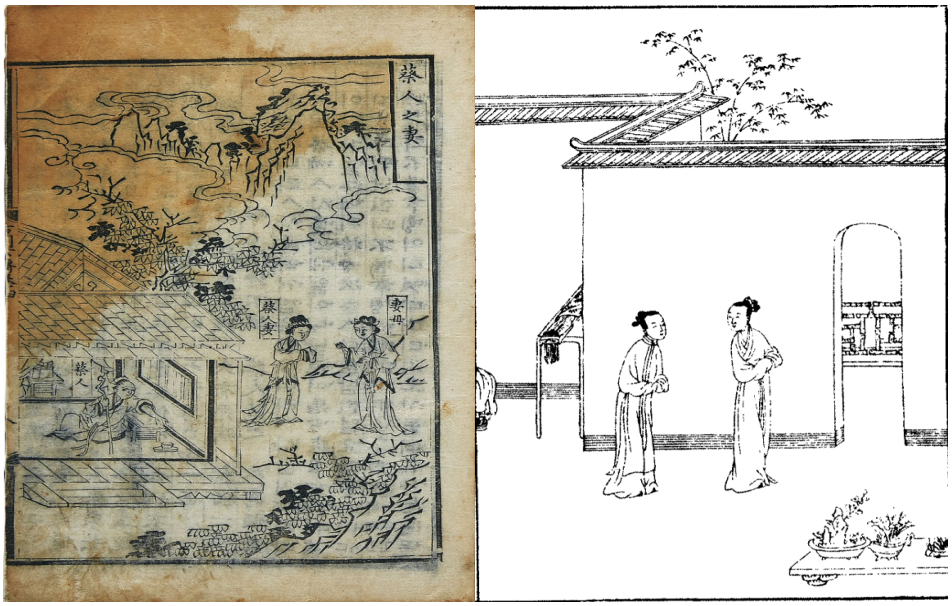
이와 같은 공간 배치는 제작자의 편집 의도와 무관하지 않은데, 그 의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만하다. 먼저, 원문과 번역문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본문이 a면에서 끝나는 경우 b면을 비워두면서까지 삽화를 a면에 위치시키는 공간 구성 방식은 언해본『고열녀전』제작의 지향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삽화의 위치를 a면에 고정시키는 방법에는 번역문을 축약하거나 주석을 줄여 본문의 분량을 조정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언해본『고열녀전』의 제작자가 이러한 방법 대신, 본문이 a면에서 마무리되는 경우 한 면을 비워두는 비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페이지에 구애받지 않고, 빈 면이 생기더라도 원전의 내용을 가감 없이, 충실하게 번역하고자 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언해본『고열녀전』의 제작 의도가 다이제스트본(略本)을 만드는 데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삽화를 의도적으로 a면에 배치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제작자의 편집 의도를 다른 측면에서도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언해본『고열녀전』의 삽화 배치 방식을, 원전을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한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만 이해한다면, 본문이 a면에서 끝을 맺었더라도 b면을 반드시 비워둘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언해본『고열녀전』의 제작자가 비경제적이라 할 수 있는 삽화 배치 방식을 고수한 데에는 별도의 의도가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리고 그 의도는 삽화의 위치가 고정됨으로 인해 독서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해 보자면, 삽화의 위치를 a면에 고정시키는 방식은 각각의 이야기가 삽화를 중심으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게 하며, 삽화와 텍스트 사이에 간격을 만든다. 이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시공간적 틈이 생김을 뜻하는데, 이러한 틈은 문해력을 지닌 독자라 할지라도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고 예측하도록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동시에 독자에게 이야기에 내포된 의미를 음미하고 정리할 기회를 제공한다. 요컨대 언해본『고열녀전』의 삽화 배치 방식은 독서 과정 측면에서 보건대,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나아가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생각해볼 시공간적 여유를 마련하고자 한 제작자의 세심한 안배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삽화의 배치 문제에서 삽화 자체로 초점을 옮겨보면, 각 열전의 제목이 텍스트가 시작되는 첫머리가 아닌 삽화의 오른쪽 상단부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타 행실도류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지만, 앞서 지적한 언해본『고열녀전』의 삽화 배치 방식상의 특징과 결부시켜 보았을 때, 이 책의 삽화가 이야기 간의 경계를 표시하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로서 기능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요소로 이해 가능하다. 다만, 언해본『고열녀전』의 삽화를 논함에 있어 열전 제목의 위치보다 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상좌의 삽화가 중국본『고열녀전』의 삽화는 물론이고 전시대 및 동시대에 간행된 행실도류의 삽화와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해본에 실린 이상좌의 삽화는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국본의 삽화를 모사하기보단 언해본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언해본「정순전」의 삽화는 각 열전의 서사 전개에서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는

데, 이는 소서에서 강조되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언해본 「정순전」의 삽화는 이전 시기에 간행된『三綱行實圖』나 동시대에 나온『二倫行實圖』의 삽화와 비교하였을 때 세부적인 내용 전달의 측면이 약화되어 나타난다.



〈그림 3〉 언해본『고열녀전』의 '蔡人之妻'(左)와『四部叢刊初編』本의 '蔡人之妻'(右)[14]

언해본『고열녀전』의 삽화는 공간을 구획하는 방식이나 디테일한 표현 등에 있

14)『四部叢刊初編』本에 수록된 '蔡人之妻'의 삽화는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DB에서 인용하였다. 국립한글박물관 편『여러 여성들의 이야기, 열녀전』(앞의 책)은『四部叢刊初編』本뿐 아니라『新刻古列女傳』本의 삽화를 비교 대상으로 수록해 놓았다. 전자는 全相(한 점의 그림을 한 면 전체에 배치) 형식을, 후자는 上圖下文의 형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두 판본은 큰 차이를 보인다. 본고는 그중『四部叢刊初編』本의 삽화만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는 언해본『고열녀전』의 삽화가 중국본을 단순히 모방한 것인지, 아니면 조선식으로 재탄생시킨 것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검토함에 있어 동일한 판화 배치 형식을 가진 중국본의 삽화를 함께 살피는 편이 삽화의 화면 구성과 세부 요소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전 시기와 당대 행실도류 삽화의 전통을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15] 그러나 화면구성 측면에서는 이전 시기 및 동시대 행실도류의 삽화와 사뭇 다른 양상을 띤다. 한 폭의 그림에 여러 장면을 담음으로써 삽화를 통해 서사의 주요 국면을 포착해낼 수 있게 구성한 이전 혹은 동시대 행실도류의 삽화와 달리 언해본 『고열녀전』의 삽화는 13점 가운데 3점만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4〉. 3점을 제외한 나머지 10점의 삽화는 그림에 넣는 장면수를 감소시켜 삽화만으로는 서사의 흐름을 읽어내기 어렵게 구성하였는데, 이는 정조 때 간행된 『오륜행실도』의 삽화 구성 방식과 유사하다.[16] 이로 미루어 보건대, 언해본 『고열녀전』의 삽화는 전시대, 그리고 동시대 행실도류 삽화의 전통을 기본적으로 이어받으면서도 화면구성에 있어서는 주류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다.[17] 문제는 언해본 『고열녀전』 삽화에서 주로 확인되는 일원적 화면구성 방식이 삽화의 서사성은 약화시키고 회화성은 강하게 만들었으리라는 점이다. 서사성은 약해지되 회화성은 강화된 삽화는 그 자체로 독자에게 하나의 예술품으로써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는 범텍스트 측면에서 본다면, 삽화에 내재된 의미가 텍스트를 읽어야만 온전히 포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삽화와 텍스트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텍스트에 대한 삽화의 종속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계층의 여성'을 염두에 두고 번역 및 간행된 언해본 『고열녀전』의 삽화가 문식성이 없는 여성들에게도 작품의 의미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였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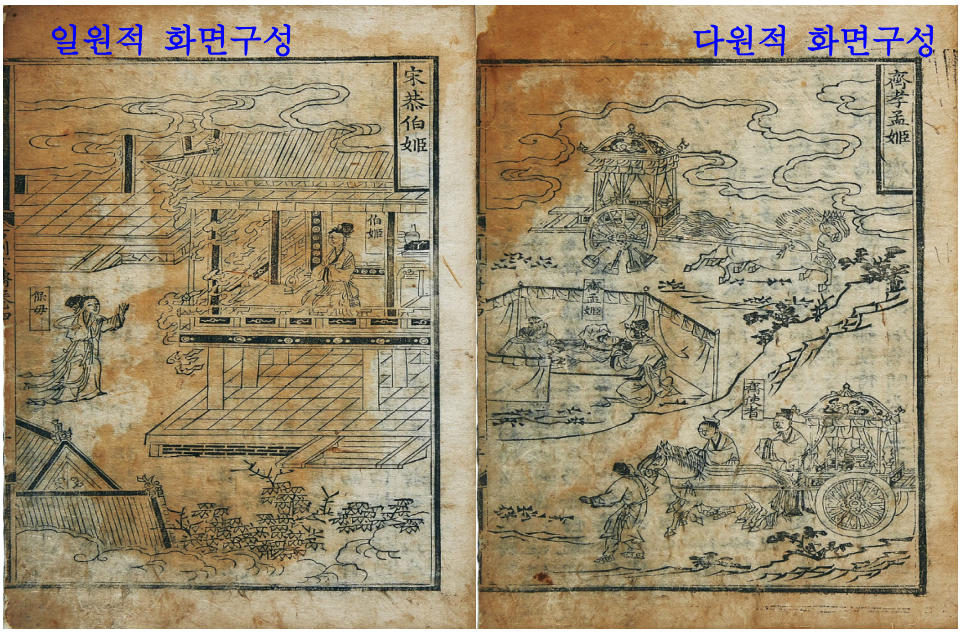
---

15) 정병모, 앞의 논문, 245-251면.

16) 후대에 편찬 및 간행된 행실도류에서 확인되는 삽화 구성 방식이 언해본 『고열녀전』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은 회화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17) 정병모, 앞의 논문, 246면.

18)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데, 그렇다면 언해본 『고열녀전』에서는 왜 서사성이 약화된 삽화를 다수 삽입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단순히 회화사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인지, 모본으로 삼은 중국 원전의 삽화 구성 방식을 준수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세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언해본 『고열녀전』은 여타 행실도나 수신서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기획물로써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언해본 『고열녀전』이 대부분의 삽화를 일원적 화면구성 방



〈그림 4〉 일원적 화면구성과 다원적 화면구성

(3) 註釋

언해본「정순전」의 곁텍스트 가운데 주석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편찬 시기는 다르지만 행실도류의 하나인 언해본『삼강행실도』와『오륜행실도』의 열녀 부분에서 확인되는 주석과 비교해보면 언해본「정순전」의 각주가 지닌 특징이 분명해진다. 전자는 주석이 달려있는 작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마저도 특정 한자어의 뜻을 설명하는 단순한 수준의 해설적 주석에 그친다. 이에 반하여 후자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전편에 주석이 존재하며 특정 한자어나 문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예법에 관한 부연설명을 덧붙이는 해설적 주석부터 관련된 고사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요약적 주석과 수사법을 활용한 표현에 내포

식을 따른 작품으로 채운 것은 삽화를 텍스트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회화성을 지닌 예술품으로 만들어 전시대 및 동시대 행실도류와 확실한 변별점을 마련하고자 한 제작 의도의 일환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된 의미와 의도를 분석하고 나아가 문학 장르의 차이를 드러내는 비평적 주석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19]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언해본 「정순전」에 나타나는 주석의 양상

해설적 주석	◆ **한자어의 의미를 설명| '蔡人之妻'** 醮禮[혼인할 때 술을 시집가는 딸에게만 부어 마시게 하고 같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芣苢[질경이다], 捋[열매를 딴다는 말이다][20] ◆ **특정 대상에 대한 설명| '宋恭伯姬'** 『春秋』[공자가 만드신 책 이름이다][21] ◆ **불특정 대명사의 지시대상 표시| '宋恭伯姬'** 公[노나라 임금이다], 大夫[季文子이다][22] ◆ **예법과 관련된 구절 부연설명| '齊杞梁妻'** "萬一에 殖의 罪를 免하게 하시면 제 祖上이 살던 허소한 집에서 조문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들에서 弔問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문을 집에서 하는 것이 예이며, 들에서 하는 것은 예가 아니기 때문이다]."[23]
요약적 주석	◆ **고사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 '楚昭貞姜'** 伯姬[宋恭의 부인 伯姬이다. 傅母가 없어서 불이 붙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피하지 않아 불에 (타) 죽었다][24]
비평적 주석	◆ **같은 한자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의도 분석| '黎莊夫人'** "微하며[(장공이 부인을) 대접하기를 거칠고 심하게 한다는 말이다] 微하다[또 미하다는 것을 두 번(이나) 다시 언급한 것은 매우 거칠게 한다는 뜻이다]."[25] ◆ **시의 수사법에 대한 설명| '楚平伯嬴'** 『시경』에서는 "茂盛한 칡이여! 나뭇가지에 옮아 넌출지도다[뒤에 있는 구절을 말하려 하여 먼저 '(어디에든) 붙지 않은 칡덩굴'을 언급한 것이다]."[26] ◆ **비유적 표현에 대한 설명| '梁寡高行'** 妾의 남편이 불행히도 일찍 죽었습니다. 개나 말의 부류보다 먼저 구렁에 묻혔습니다.[죽었다는 말이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 개와 말이 자신의 짝을 사랑하여 좇아다니는 것과 같으므로 신하가 謙辭하며 견주어 이른 것이다.][27] ◆ **시가 장르 간의 차이 제시| '魯寡陶嬰'** 『시경』에서는 "마음에 근심이 있어 내가 歌[풍류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이다]를 하며 또 謠[풍류 없이 혼자 부르는 노래이다]를 하노라"라 하니 이를 이르는 것이다.[28]

19) 언해본 「정순전」에 나타나는 주석은 기본적인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해설적 주석, 요약적 주석, 비평적 주석)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해설적 주석은 특정 낱말, 표현, 구절, 대상 등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그와 관련된 부연설명을 덧붙여 텍스트에서 제시된 상황 및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주석이다. 다음으로, 요약적 주석은 '楚昭貞姜'의 예와 같이 「정순전」에 실린 다른 열전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는 내용을 핵심만 추려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주석으로, 문맥 파악을 용이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비평적 주석은 텍스트나 텍스트 안의 인용문에서 언급 또는 활용된 수사법, 표현 방식, 문학 장르 간의 차이 등을 논리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분석, 평가, 분류함으로써 특정 표현 및 수사법을 사용한 의도와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독자들이 포착해낼 수 있게 하는 주석으로 해설적 주석과 차이를 지닌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언해본 「정순전」은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독해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궁금증을 야기할 만한 표현에 세세하게 주석을 붙여놓았다. 〈표 2〉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행하는 열전의 주석에서 설명되었던 한자어가 후행하는 열전의 주석에 나타나는 경우도 적잖이 확인되는데, 각 주석에 기술된 내용을 살피면 문맥에 따른 의미 차이까지 세심하게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언해본 『고열녀전』의 제작자들(번역자, 2차 편집자)이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언해본의 주석이 여성에게 한문, 문학, 예법 등 다양한 분야의

---

20) “醮초禮·례[婚혼姻인ᄒᆞᆯ 제 수·ᄅᆞᆯ ·가·ᄂᆞᆫ ·ᄯᅩ·만 브·ᄉᆡ 머·기·고 서ᄅᆞ :진·지 아·니ᄒᆞᆯ·시·라]”, “芣부苢이[·길·경이·라]”, “捋·날[여·ᄅᆞᆷ ·ᄡᅳ다·ᄒᆞ·ᄂᆞᆫ :말이·라]”(국립한글박물관 편, 앞의 책, 56-57면).

21) “春츈秋츄[孔공子·ᄌᆞㅣ 밍·ᄀᆞᄅᆞ신 册·칙 일·훔이라]”(위의 책, 40-41면).

22) “公공[魯·로國·국 :님·금·이·라], 大·태夫우ㅣ[季·계文문子·ᄌᆞㅣ라]”(위의 책, 38-39면).

23) “萬:만一·일·에 殖·식·을 罪:죄:예 免:면·케·ᄒᆞ시·면 賤:쳔妾·쳡·의 祖·조上:샹:사던 :허소ᄒᆞᆫ 집·이 잇ᄉᆞ·오·니 妾·쳡·이 드·르·헤·셔 弔:됴喪상ᄒᆞ·기·예 參참與:여·티 :몯ᄒᆞ·리·로·소이·다[弔:됴喪상·을 집·의·셔 ·호·미 禮·례·오 드·르·희·셔 ·호·미 禮·례 아·닐·ᄉᆡ·라]”(위의 책, 96-97면).

24) “伯·빅姬희[宋:송恭공伯·빅姬희니 傅부母·모ㅣ :업거·늘 ·브·리 브·터:오·ᄃᆡ 避:피·티 아·니·ᄒᆞ·야 ·브·레 주·그니라]”(위의 책, 112-113면).

25) “微미[:ᄃᆡ·졉ᄒᆞ·기·를 사·오나·이 ᄒᆞ·단 :말·ᄉᆞᆷ·이·라] ᄒᆞ·며 微미[·ᄯᅩ 微미ᄒᆞ·다 ·ᄒᆞ·야 :두 번 다·시 닐·오·ᄆᆞᆫ ᄀᆞ장 사·오나·이 ᄒᆞ:단 :말·삼·이·라]”(위의 책, 64-65면).

26) “詩시·예 ᄀᆞ·로·ᄃᆡ 茂:무盛:셩ᄒᆞᆫ ·츩기·여 나못·가·지·예 올·마 너·추놋·다[後후ㅅ:말 닐·오·려 ·ᄒᆞ·야 몬저 븐디 아니ᄒᆞᆫ 츩마ᄅᆞᆯ 니ᄅᆞ니라]”(위의 책, 126-127면).

27) “妾·쳡·의 남진·이 幸:힝·티 :몯·ᄒᆞ·야 ·일 주·거 :개 ·ᄆᆞᆯ:류·에·셔 몬져 굴·헝·의 몃구·여·ᄂᆞᆯ[죽·다·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이·니 臣신下:하ㅣ :님·금 셤·기·미 :개·와 ᄆᆞ리 ·제 :님·자 ᄉᆞ랑·ᄒᆞ·야 조·차 ᄃᆞᆫ:니·기·과 ·ᄀᆞ·ᄐᆞ·모·로 臣신下:하ㅣ 謙겸辭ᄉᆞ·ᄒᆞ·야 건·줘 니ᄅᆞ·니·라]”(위의 책, 172-173면).

28) “詩시·예 ᄀᆞ·로ᄃᆡ ᄆᆞᄉᆞᆷ애 근심·ᄒᆞ·ᄂᆞᆫ디라 내 歌가[풍류·에 마·초·와 브르ᄂᆞᆫ 놀애라] ᄒᆞ·며 ·ᄯᅩ 謠요[풍류 :업시 혼자 브ᄅᆞᄂᆞᆫ 놀애라] ·ᄒᆞ·노·라 ᄒᆞ·니 ·이·를 니르·도·다”(위의 책, 150-151면). ‘歌’와 ‘謠’에 붙은 주석은 각각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해설적 주석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歌’와 ‘謠’에 대한 주석이 연이어 제시될 뿐 아니라 주석의 내용이 둘의 장르적 차이가 드러나도록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예시는 특정 어휘, 표현, 구절, 대상 등의 뜻을 설명해주는 해설적 주석보단 텍스트에 제시된 수사법, 표현 방식, 문학 장르 등의 활용 의도와 특징, 함의를 분석·평가·분류해주는 비평적 주석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당 예시를 비평적 주석에 포함시켰다.

학습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책 제작에 임하였음을 의미한다.

2) 언해본『고열녀전』의 바깥텍스트

(1)『稗官雜記』권4의 기록

언해본『고열녀전』을 둘러싼 바깥텍스트 가운데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패관잡기』권4의 기록은『고열녀전』언해본의 제작 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패관잡기』권4에서 제시된 정보는 언해본『고열녀전』이 제작자들의 특정한 의도 아래 탄생한 기획물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가정 계묘년에 ①中宗이 劉向의『列女傳』을 내주며 禮曹로 하여금 諺文으로 번역하게 하였다. ②예조가 아뢰어 청해서 申珽과 柳沆이 번역하고 柳耳孫이 글자를 썼다. 예전 판본은 본래 顧愷之의 그림인데, 세월이 오래되어 판각이 와해되어 매우 筆格을 잃었으므로, 이상좌로 하여금 대강 예전 그림을 모방하여 다시 그리게 하였는데, ③완성된 뒤에 잘못 舊本에 의거하여 매양 책마다 첫머리에 쓰기를, "한 나라 유향의 편찬, 晉 나라 고개지의 그림."이라 하였으니, 마치 班固의 至今血食이란 글과 같다. 이 글이 후세에 전해지게 되면 누가 이것이 이상좌의 그림인지 알겠는가.[29]

어숙권의 기록에 의하면 언해본『고열녀전』은 중종 임금의 명에 따라 진행(①)된 국가 주도 사업의 결과물로 이문학관을 역임한 유항, 역관 신정, 도화서 화원 유이손과 이상좌가 언해본을 제작하는 데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②). 언해본『고열녀전』의 제작이 세밀한 분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 책이 중국의 판본을 복각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편집을 거쳐 완성된 것임을 의미한다.[30] 실제로 2장 1절에서 확인하였던바, 언해본『고열녀전』은 적지 않은 공력을

---

29) 어숙권,『稗官雜記 四』"嘉靖癸卯. 中廟出劉向列女傳, 令禮曹飜以諺文, 禮曹啓請申珽柳沆翻譯, 柳耳孫寫字. 舊本本顧愷之畫, 而歲久刻訛, 殊失筆格, 令李上佐畧倣古圖而更畫之. 旣成, 誤依舊本書於每卷之首曰, 漢劉向編撰, 晉顧愷之圖畫, 正猶班固至今血食之文. 使此書傳於後世, 則孰知其爲李上佐之畫乎."(한국고전종합DB).

30) 박철상, 앞의 논문, 206면.

들여 완성한 책인 동시에 어숙권의 증언에서 드러나듯 기획 단계에서부터, 원본텍스트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다이제스트본이나 단순 번역본과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제작된 기획물로 이해된다. 이 점은 위 인용문 말미에서도 재차 확인 가능하다. 어숙권은 언해본『고열녀전』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지적하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였는데(③),『고열녀전』언해본의 삽화가가 책에 기록된 것과 달리 진고개가 아닌 이상좌라고 정정하는 작업은 일견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고열녀전』언해본의 삽화가가 2차 저자에 해당하는 만큼 2차 저자에 대한 정보를 바로잡는 일은 유향의『열녀전』이 조선에서 번역 및 간행되는 과정에서 원전과는 변별되는 별도의 의도를 가지고『고열녀전』언해본으로 탄생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31]

(2)『朝鮮王朝實錄』기사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는 제3자에 의해서 작성된 언해본『고열녀전』의 바깥텍스트 중 하나이다.『조선왕조실록』에 실린 기사 중 언해본『고열녀전』의 제작 기획과 진행 사항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는 기사는 두 편에 불과하지만 아래의 중종 12년 6월 27일의 기사는『고열녀전』의 번역 의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 "①요사이 道學이 밝지 못하고 교화가 쇠퇴하여 閨門의 법도가 褻慢하고 문란하여 못하는 것이 없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본이 이미 이러하니 그 말단도 알 수가 있습니다. 夫婦간에 투기하고 父子간에 반목하고 형제간에 해치는 자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풍속의 무너짐이 이때보다 심한 때가 없는 것도 다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心學에 침잠하고 인륜을 후하게 하기를 힘쓰시어, 이미『續三綱行實』을 命撰하시고 또『小學』을 印行토록 하여 中外에 널리 반포코자 하시니, 그 뜻이 매우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②『삼강행실』에 실려 있는 것은, 거의가 변고와 위급한 때를 당했을

31) 예상 독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숙권이 남긴『패관잡기』권4의 기록처럼 책의 제작과 그에 관계한 제작자들에 대하여 기술한 바깥텍스트는 제작자의 의도에 대하여 생각해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성격의 교훈서·행실도류 가운데서 언해본『고열녀전』을 선택하여 읽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때의 특수한 몇 사람의 激越한 행실이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행하는 도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학』은 곧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인데도 일반 서민과 글 모르는 부녀들은 讀習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여러 책 가운데에서 日用에 가장 절실한 것, 이를테면 『소학』이라든가 『列女傳』·『女誡』·『女則』과 같은 것을 한글로 번역하여 印頒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위로는 宮掖으로부터 朝廷卿士의 집에 미치고 아래로는 여염의 小民들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 없이 다 강습하게 해서, 일국의 집들이 모두 바르게 되게 하소서. 그러면 乖氣는 사라지고 天和가 응하여, 사람마다 윗사람을 친히 하고 관장을 위해 죽는 효용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이 또 있는 것이니, 그들을 교화해 가는 법은 실상 성상께서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신 결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32]

인용문의 내용(①)에 따르면 『고열녀전』 언해본의 번역 및 간행 의도는 규문의 법도를 바로 세워 풍속을 단속하려던 데 있었던 듯하다. 다만 ②를 통하여 짐작건대, 언해본 『고열녀전』의 제작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종 대 조정 관료들은, 『소학』, 『여계』, 『여측』, 『열녀전』의 언해본을 제작 및 반포함으로써 이루고자 한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하게 인식하였을지언정 각각의 텍스트가 지닌 쓰임과 효능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인정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유향의 『열녀전』 소재 열전들이 『삼강행실도』에 이미 여러 편 수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문관에서 『삼강행실도』는 특수 사례집으로, 『소학』 이하는 일상생활 규범집으로 파악하면서 『열녀전』, 『여계』, 『여측』 등에 대한 번역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실은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홍문관에서 『소학』뿐 아니라

32) 『조선왕조실록』, 중종 12년 6월 27일(辛未), "近者道學不明, 敎化陵夷, 閨門之內, 褻慢顚紊, 無所不至. 本旣如是, 其末可知. 夫婦妬悖, 父子反目,兄弟相殘者, 比比有之. 風俗之壞, 莫甚此時, 蓋有由矣. 聖上沈潛心學, 懋厚人倫, 旣命撰『續三綱行實』, 又命印『小學』, 欲廣頒中外, 意甚盛也. 然『三綱行實』所載, 率皆遭變, 故艱危之際, 孤特激越之行, 非日用動靜常行之道, 固不可人人而責之.『小學』之書, 迺切於日用, 而閭巷庶民及婦人之目不知書者, 難以讀習矣. 乞於群書內, 最切日用者, 如『小學』, 如『列女傳』, 如『女誡』·『女則』之類, 譯以諺字, 仍令印頒中外, 俾上自宮掖, 以及朝廷卿士之家, 下達于委巷小民, 無不周知, 而講習之, 使一國之家皆正, 則乖氣熄, 天和應, 而人人有親上, 死長之用矣. 然又有本焉, 其敎之之則, 實在聖上躬行心得之餘. 伏惟聖上, 潛心焉."(한국고전종합DB).

『열녀전』, 『여계』, 『여측』을 특별히 언급하며 번역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청하였고, 이후 결국 『고열녀전』 언해본의 제작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언해본 『고열녀전』의 제작자들도 이 책을 『소학』, 『여계』, 『여측』 등과는 다른 효용을 가진 서적으로 인지하고 번역에 임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여기서 앞서 제기하였던 '언해본 『고열녀전』의 제작자들은 이 책을 어떠한 텍스트로서 기획하였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른다. 2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 언해본 『고열녀전』은 협주를 자세하게 달아놓음으로써 텍스트에서 전달하려는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고 한문 교육에 기여하는 한편 당대 인물화와 서예에 능했던 도화서 화가들에게 삽화와 글씨를 맡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완성된 책이다. 소서, 삽화, 주석에서 확인되는 언해본 『고열녀전』의 독특한 특징은 이 책의 기획 의도가 다이제스트본 형태의 여성 교화서를 만드는 데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고열녀전』 언해본에 실린 열전들이 다른 행실도류에 부분적이나마 이미 수록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조선왕조에서 유향의 『열녀전』을 번역해 언해본을 만든 것은, 2장 2절에서 검토한 바깥텍스트를 통해 유추해 보건대, 여성들이 전범으로 삼을 수 있는 혹은 경계해야 할 모든 유의 여성상을 담은 일종의 바이블(bible) 내지 正典(canon)을 제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언해본 『고열녀전』이 하나의 정전 혹은 바이블로서 기획되었다고 할 때, 책을 둘러싼 곁텍스트들은 제작자가 의도하였던 대로 독자가 텍스트를 독해하는 데 구심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였을까.

3. 언해본 『고열녀전』 곁텍스트의 구심성과 원심성

2장에서는 언해본 『고열녀전』이 곁텍스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완성된 기획물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2장 말미에서 던졌던 의문을 해소시켜줄 단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원본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던 곁텍스트는 번역을 거쳐 언해본으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2차 저자의 의도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

를 특정한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게끔 조작이 가해진다. 그런데 이렇듯 2차 저자의 손을 거쳐 재탄생한 곁텍스트는 독해 과정에서 제작자의 의도대로 작동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언해본의 곁텍스트가 2차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예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아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언해본 『고열녀전』에서 확인되는 여러 곁텍스트가 독자의 독해 과정에서 제작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던가는 이본의 곁텍스트나 독서 기록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다. 그러나 언해본 『고열녀전』 자체가 현전하는 이본이 적고, 남아있는 이본마저도 『소학언해』나 『녀힝』, 『녀훈』, 『여인열전』 등 다른 저서와 합쳐져 있거나 줄거리만 요약[33]된 형태를 띠고 있어 그 안에서 언해본 『고열녀전』의 곁텍스트를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만 선별해 내기는 쉽지 않다. 또 언해본 『고열녀전』의 곁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을 만한 독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독서 과정에서 곁텍스트가 텍스트 독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현전하는 이본 가운데 언해본 『고열녀전』의 내용만 담은 필사본으로서 본고에서 검토하였던 곁텍스트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이본이 몇 종 존재해 이를 통해 언해본 『고열녀전』의 곁텍스트가 텍스트로의 몰입과 메시지 형성에 어떤 방향에서 작동하였던가를 약간이나마 추정해볼 수 있다.[34]

앞서 살펴본바, 『고열녀전』 언해본은 소서의 위치를 해당 편목의 서두에 배치함

33) 이상훈, 앞의 논문, 2면.

34) 언해본 『고열녀전』의 곁텍스트가 지닌 구심성과 원심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녈녀던』(4卷 1冊, 이하 국중본)과 국회도서관 소장 『고열녀젼』(8卷 4冊, 이하 국회본), 하버드 옌칭도서관 소장 『고녈녀던』(3卷 1冊, 이하 옌칭본) 3종뿐이다. 국회본을 제외한 국중본과 옌칭본은 언해본 『고열녀전』과 마찬가지로 일부 편목만 남아 있는데, 권4에 해당하는 「정순전」의 열전이 수록되어는 있으나 15편의 열전 가운데 각각 전반부 7편('쇼남신녀'-'식군부인')과 후반부 8편('제긔냥쳐'-'진과효부')만이 실려 있어 언해본 『고열녀전』과 온전히 비교해서 살피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세 이본 모두 「정순전」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소서, 주석 등의 곁텍스트가 확인되어 새로운 이본의 제작자이자 독자인 필사자가 곁텍스트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에 대한 작은 단서 정도는 포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으로써 독자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후술될 열전을 읽어야 하는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명시하였다. 소서가 책의 전체 목차와 서문이 있는 곳이 아닌 각 편목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제시됨에 따라 독자는 소서에서 기술된 내용과 강조점을 잊어버리기 전에 작품을 접하게 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는 2차 저자의 제작 의도에서 벗어나는 해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독자로 하여금 소서가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을 의식하면서 이어지는 열전을 독해해 나가도록 작용하였으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고열녀전』언해본의 소서는 작품의 의미를 특정한 방향으로 견인하는 구심성을 지닌 곁텍스트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고열녀전』언해본뿐 아니라 국중본과 옌칭본의 경우에도 각 편목이 시작되는 상단부에 소서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고열녀전』언해본을 읽은 독자들이 소서의 존재 여부와 배치 방식이 지닌 효과를 인지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 가능하다.[35] 그렇지만『고열녀전』언해본의 또 다른 이본인 국회본이 8편의 소서를 전부 생략하였다는 점에서 곁텍스트로서의 소서는 언해본『고열녀전』의 독자에게 일반적으로 텍스트 이해와 몰입에 도움을 주는 구심성을 지닌 요소로 받아들여지기는 하였으나 생략한다고 해서 텍스트의 의미 파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여겨졌던 것은 아닌 듯하다.[36]

그렇다면 삽화의 경우 독자에게 곁텍스트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언해본『고열녀전』에 실린 삽화들은 텍스트의 서사 전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주요 장면을 담고 있는데, 2장에서 지적하였듯 이들 삽화는 작품이 시작되기 직전, 가장 먼저 제시되며 반드시 a면에 배치되어 독립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35) 전술하였듯 옌칭본의「정순전」은 후반부의 열전 8편만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때문인지「정순전」과 관련된 소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節義傳」과「辯通傳」의 소서가 각각 첫 번째 열전이 실려 있는 상단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정순전」의 앞부분이 온전히 남아있었다면 여기에도 소서가 첫 번째 열전인 '쇼남신녀'의 여백 부분에 부기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사료된다.

36) 비록 소서가 없는 이본이 1종 존재하지만 3종의 이본 중 2종이 소서를 필사해 놓았으며,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언해본『고열녀전』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소서를 해당 편목의 첫 번째 작품이 시작되는 부분에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언해본『고열녀전』의 독자들이 곁텍스트로서의 소서가 지닌 구심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텍스트의 의미망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만든다. 곁텍스트로서의 삽화는 언해본 『고열녀전』에서 일종의 예고편(preview)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독서의 흐름을 끊기보다 독자를 작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듯 보인다는 점에서 언해본 『고열녀전』의 삽화는 구심성을 가진 곁텍스트로 분류될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삽화의 화면구성 방식과 관련하여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전술하였듯 언해본 『고열녀전』에 실린 대다수의 삽화는 일원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37] 그런데 이는 이전 시기 및 동시대 행실도류 삽화의 화면구성 방식과 크게 다른 것으로 『삼강행실도』만 하더라도 다원적 구성 방식을 이용하여 그림 안에 시간의 흐름을 담아냈다. 언해본 『고열녀전』이 교화서의 하나로서 기획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언해본 『고열녀전』이 이전 시기의 스토리텔링적 삽화를 고수하지 않고 회화적 성격을 지닌 삽화로 화면구성 방식을 전환해나가는 양상을 띤다는 점은 음미해볼 만한 지점이다. 이 책이 독자를 교화시킬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면 2차 저자인 제작자가 텍스트에서 강조하려는 바를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다원적 구성 방식의 삽화가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언해본 『고열녀전』의 삽화는 독자의 몰입을 방해하고 작품의 메시지 전달을 막는 원심적인 곁텍스트라고까진 할 수 없지만, 이전 시기 및 동시대 행실도류에 실린 삽화와 비교하였을 때 독자에게 구심성은 줄어들고 약간의 원심성을 내포하게 된 곁텍스트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사료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국중본, 국회본, 옌칭본 어디에도 삽화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물론 국중본, 국회본, 옌칭본이 모두 필사본이라는 점

37) '일원적 구성 방식'과 '다원적 구성 방식'이라는 용어는 권정은이 「『오륜행실도』를 통해 본 문학과 그림의 교육적 실현」에서 사용한 용어로 본고는 이 용어를 빌려와 사용하고자 한다. 권정은의 연구 이외에도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 소재 삽화의 화면 구성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현우, 2009, 「『오륜행실도』 도상의 삽화적 성격과 그 함의 -『삼강행실도』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0, 한국고전연구학회; 오정란, 2011,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 도판 그림의 이야기 전달력 비교」, 『인문언어』 13, 국제언어인물학회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졌다.

에서 이들을 중종의 명 아래 官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언해본『고열녀전』과 동일 선상에 두고 논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국중본, 국회본, 옌칭본은 필사본의 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사적 영역에서 생성 및 유통되었을 텐데, 이는 이들 이본이 비용적인 부담과 수고로움을 감내하면서까지 삽화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성격의 책이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중본, 국회본, 옌칭본이 언해본『고열녀전』과 달리 삽화를 수록하지 않은 주된 원인은 자료적 성격 차이에 놓여 있지 않나 싶다. 그러나 한편으론, 삽화의 수록 여부에, 이들 이본의 제작자이면서 독자이기도 한 2차 저자의 판단이 미약하게나마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자면, 국회본은 권2 말미에 남아있는 필사기를 통해 유추해 보건대 가문 내부에서 여성을 교화시키고 아동을 교육하려는 목적 아래 필사되어 자손에게 유전되던 책으로 생각된다.[38] 이를 고려하면 국회본의 제작자가 교육의 효과를 절감시키는 선택일 수 있음에도 삽화를 생략한 건, 삽화를 수록함으로써 본인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과 번거로움에 비하여 텍스트의 의미 형성과 독서 몰입에 삽화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39] 이렇듯 이본의 제작자가 삽화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텍스트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는 요소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해본『고열녀전』의 삽화가 제작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강력한 구심성을 지닌 곁텍스트는 아니었으리라는 추측을 조심스럽지만 제기할 수 있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곁텍스트로서의 주석이 독서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였을지에 대하여 논해 보자면 언해본『고열녀전』은 전술하였던 것처럼 다양한 유형의 주석을

38) 국회본『고녈여젼』春 권2, 筆寫記 "이 칙을 갑ᄌᆞ동의 ᄂᆞᆷ의 칙을 어더 여러히 하츄동 삼권만 벗겻더니 이십년 만의 초권마자 벗기니 ᄉᆡ훤은 ᄒᆞ나 글시ᄂᆞᆫ 엉동이 노필되여시니 한심ᄒᆞ더 ᄌᆞ손은 귀히 보라. 계미동의 황곤 필셔".

39) 국중본과 옌칭본의 경우 국회본과 같은 필사기가 남아있지 않아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필사한 책인지 알 수 없어 위와 같이 이야기하기 힘든 지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필사 상태로 보건대 두 이본도 국회본과 마찬가지로 가문 내의 인물들(여성, 아동 독자)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책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 국중본과 옌칭본의 제작자들 역시 삽화를 구심성보다는 원심성이 큰 곁텍스트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달아 텍스트의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작자의 의도만 고려한다면 주석은 강한 구심성을 지닌 곁텍스트로 규정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언해본『고열녀전』의 주석이 협주의 형태로 제시되며 주석의 수가 비교적 많다는 사실은 이 책에서 주석이 도리어 독서, 곧 의미 형성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지나치게 많은 각주는 독서의 연속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문학 작품조차 학술적 저술로 인식하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40] 실제로「정순전」 부분만 놓고 비교해보았을 때, 국회본은 '졔효밍희' 한 편에, 국중본은 '위션부인' 한 편에, 옌칭본은 '졔긔낭쳐' 한 편에 단 하나의 주석이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필사자가 텍스트의 의미 형성에 주석이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생략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41] 언해본『고열녀전』이 권4만 남아있어 이본 간 전체 주석의 수와 양상을 세밀하게 견주어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회본, 국중본, 옌칭본 모두「정순전」 이외의 편목에서 발견되는 주석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마저도 대부분 해설적 주석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언해본『고열녀전』의 독자에게 주석이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는 추정에 한층 힘을 실어 준다.

물론 주석의 수와 유형에 있어 언해본『고열녀전』과 세 이본이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주독자층의 사회적 지위나 지적 수준의 차이에서 찾을 수도 있다. 만약 세 이본의 주요 독자가 국회본의 필사기에서 유추할 수 있듯 가문 내부의 여성과 아동이었다면 필사를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을 사항은 텍스트의 내용 전달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본에 나타나는 주석의 유형과 수가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조절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 이본에 나타나는 주석의 유형 및 수가 단조로워진 이유를, 필사자가 주석을, 독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제외하였으리라는 가능성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여

40) 최의식, 2011「파라텍스트 분석에 의한 번역비평 시론: 발자크의『고리오 영감』을 중심으로」,『한국프랑스학논집』57, 한국프랑스학회, 200면의 각주 15 참조.

41)「정순전」에는 본래 총 15편의 열전이 수록되어 있는데 국회본의 경우 '졔기량처' 한 편이, 국중본의 경우 '졔기량처'부터 '진과효부'까지의 8편이 빠져있어 온전한 비교가 어렵다.

지는 여전히 충분하다.[42] 어떤 주석을 얼마나 넣을 것인가에는 저본으로 삼은 책의 주석에 대한 필사자의 판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측해본다면 언해본『고열녀전』의 제작자들이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목적에서 첨가하였던 다양하고도 방대한 양의 주석은 독자에게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졌고, 이에 이본의 필사자들이 곁텍스트로서의 주석이 지닌 원심성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주석의 유형과 수를 조정하였던 것은 아닐까 한다.

정리하자면 언해본『고열녀전』은 다양한 곁텍스트를 세심하게 기획하여 완성한 책이었으나 이들 곁텍스트가 독서로의 몰입을 돕고, 작품의 의미망을 형성 및 예각화하는 일관된 방향으로만 작동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언해본『고열녀전』의 곁텍스트 검토를 통하여 이 책이 어떠한 성격의 저서로서 기획된 것인지를 규명하고, 곁텍스트에 대한 Ellen McCracken 관점을 빌려와 책을 둘러싼 곁텍스트가 제작자의 본래 기획 의도대로 작동하여 텍스트의 의미 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독자가 독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언해본『고열녀전』은 일종의 바이블 내지 정전으로서 기획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획의도에 따라 세심하게 곁텍스트가 구성되었음을 확인

42) 엄밀한 논의를 위해선 국회본, 국중본, 옌칭본이 저본으로 삼은 책이 무엇이며, 저본에 실린 주석을 그대로 옮겼는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필사기가 남아있지 않은 현재로선 이러한 지점을 모두 헤아린다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만일 세 이본이 저본을 그대로 필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필사자의 판단이 들어가 있으리라 생각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들 이본으로부터 세 이본의 저본을 만든 제작자의 언해본『고열녀전』의 주석에 대한 판단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이에 본고는 위 본문에서와 같이 논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였다. 그러나 3장에서 살펴본바 이들 곁텍스트는 제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텍스트의 의미 형성을 방해하거나 텍스트로의 몰입을 저해하는 방향에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고열녀전』언해본의 곁텍스트를 통시적 관점에서 엄밀하게 고찰하지는 못하였는데, 곁텍스트의 종류 및 제시 방식이 문화, 장르, 매체, 판본뿐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주도 아래 간행된 언해본 행실도류에서 발견되는 곁텍스트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하여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투고일(2020. 10. 27), 심사일(2020. 11. 26), 게재확정일(2020. 12. 13)

참고문헌

1. 자료

국립한글박물관 편, 2015『여러 여성들의 이야기, 열녀전』, 국립한글박물관.
『고녈녀뎐』(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고열녀젼』(국회도서관 소장본).
『고녈녀뎐』(하버드 옌칭도서관 소장본).
『新刻書局叢書』本『古列女傳』(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DB).
『欽定四庫全書』本『古列女傳』(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DB).
『四部叢刊初編』本『古列女傳』(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DB).
『崇文書局叢書』本『古列女傳』(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DB).
魚叔權,『稗官雜記 四』(한국고전종합DB).
『朝鮮王朝實錄』(한국고전종합DB).

2. 연구논저

김문웅 역주, 2010『譯註 二倫行實圖』,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김정수 역주, 2010『譯註 三綱行實圖』,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성낙수, 이수웅, 이광호 역주, 2016,『譯註 五倫行實圖』, 세종대왕기녀사업회.

Gérard Genette(translated by Jane E. Lewin),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강명관, 2015「유향의『고열녀전』과『삼강행실도』「열녀편」」,『여러 여성들의 이야기, 열녀전』(국립한글박물관 편), 국립한글박물관, 215-232면.
강현경, 1998「劉向『列女傳』의 撰述本意와 流傳樣相」,『語文硏究』30, 어문연구학회, 7-34면.
권정은, 2012「『오륜행실도』를 통해 본 문학과 그림의 교육적 실현」,『고전문학과 교육』2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21-246면.
김영, 박재연, 이재홍, 2015「조선본『古列女傳』의 발굴과 그 의미」,『중국어문학지』51, 중국어문학회, 87-112면.

김 영, 2016「조선본『古列女傳』의 가치와 의미」,『한국중국소설학회』99, 한국중국소설학회, 73-79면.

박선희, 2015「번역문의 곁텍스트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에 대한 정의」,『번역학연구』16, 한국번역학회, 7-33면.

박철상, 2015「조선본『열녀전』의 서지적 의미」,『여러 여성들의 이야기, 열녀전』(국립한글박물관 편), 국립한글박물관, 198-214면.

오정란, 2011,「『삼강행실도』와『오륜행실도』도판 그림의 이야기 전달력 비교」,『인문언어』13, 국제언어인물학회, 185-209면.

이상훈, 2015「『古列女傳』의 한글 필사본에 대한 연구」,『한국문화』71, 규장각한국학연구소, 33-52면.

이윤경, 2010「유향의『열녀전(列女傳)』편찬의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병모, 2015「이상좌가 그린『고열녀전』언해본 삽화」,『여러 여성들의 이야기, 열녀전』(국립한글박물관 편), 국립한글박물관, 233-254면.

조현우, 2009,「『오륜행실도』도상의 삽화적 성격과 그 함의 -『삼강행실도』와의 대비를 중심으로-」,『한국고전연구』20, 한국고전연구학회, 141-168면.

지영래 · 박선희, 2010「번역본에서의 곁텍스트의 위상: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을 중심으로」,『번역학연구』11, 한국번역학회, 247-276면.

최의식, 2011「파라텍스트 분석에 의한 번역비평 시론: 발자크의『고리오 영감』을 중심으로」,『한국프랑스학논집』57, 한국프랑스학회, 195-234면.

최진아, 2001「견고한 원전과 그 계보들 -동아시아 여성 쓰기의 역사-」,『중국어문학지』9, 중국어문학회, 323-365면.

Ellen McCracken, 2013 "Expanding Genette's Epitext/Peritext Model for Transitional Electronic Literature: Centrifugal and Centripetal Vectors on Kindles and iPads", *Narrative* vol.21 no.1, pp.105-124.

Abstract

A Study on the Hangeul version of *Koyolnyojun* in the National Hangeul Museum through Paratext

− Focusing on Preface to a Chapter, Illustrations, Annotations −

Kang Narae *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ntion of editing and planning the Hangeul version of *Koyolnyojun*, now resting in the National Hangeul Museu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aratext. Furthermore,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whether the paratext of the book works as the centripetal vector or not. Although only one of the eight books remains, the book is highly valuable as a translated version, completed by Yi Sang-jwa, Yu Yi-son, Shin Jeong, and Yu Hang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 However, despite the value of this book, it has not been explained the intention of planning the Hangeul version of *Koyolnyojun*, which is quite important to figure out the nature of this book.

Before entering into specific discussions, the category of paratext was readjusted,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book was a classic text and the Hangeul version. Among paratext, this study examined preface to a chapter, illustrations, annotations as a peritext, and a record from *Paegwanjapgi*, articles from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s an epitext. The Hangeul version of Koyolnyojun, looking through the paratext, is presumed to be the result of the producer's desire to create a canon beyond the translated version or simplified version. However, contrary to the editor and producer's intention, the paratext of the book, compared to the different versions, works not only in the centripetal vector that

* Ph.D. student,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encouraged reading and forming the meaning of the texts but also in the centrifugal vector.

Key words : Hangul version of *Koyolnyojun*, paratext, peritext, epitext, canon, centripetal vector, centrifugal vector